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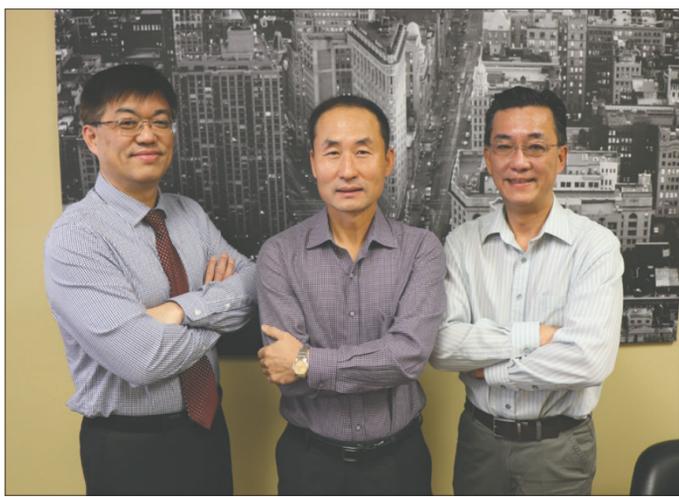
MLU의 무한도전 “정직과 전문성으로 승부한다”

경영 컨설팅 & 건설개발·시행 회사
로컬 넘어 글로벌로 사업확장

작은 로컬회사로 시작해 실력을 인정 받고 규모를 키워 글로벌 프로젝트에 뛰어드는 회사가 있다.

MLU 코퍼레이션이다. 이문구 건축총괄(사진 가운데)과 이현구 기획총괄(오른쪽), 김광빈 재무(왼쪽)가 함께 운영하고 있다.

MLU는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는 성경구절처럼, 작은 일로 시작해 시간이 흐르면서 큰 사업을 맡았다. 20여 년 전 전기공사 일로 시작한 이문구 건축총괄이 점점 사업규모를 키워 지금은 롯데 플라자 마켓 단독 공사, 3스타급 호텔, 오피스 빌딩, 대형 레스토랑, 카워시, 상업용 건물 투자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부지를 구입하고, 건물을 올리고, 내부 시설 공사를 하고, 경영 컨설



팅까지 한다. 최근에는 중국, 한국 회사들도 MLU에 프로젝트를 의뢰하고 있다. 이문구 건축총괄은 “여기서 수많은 건설업체가 문을 열었다 닫았지만 우리는 생존할 수 있었다”며 “건설비용

을 부풀리지 않는 등 의뢰인들에게 정직했고, 합리적인 가격을 제시했다. 건축을 오래하면서 쌓은 노하우로 원가를 절감하기 때문에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요즘 MLU가 맡는 프로젝트는 50만~1000만 달러 규모다. 은행 돈을 끌어당겨 프로젝트를 진행하도록 도와주기도 한다. 한국 동아건설 해외기획팀에서 경력을 쌓은 김광빈 재무가 미국은 행과 직접 소통한다. 은행 고위직 디렉터가 김 재무를 찾아올 정도라고 MLU는 설명했다.

이문구 건축총괄은 “초기에 용자인을 잘못 만나 고생을 많이 하면서 은행과 직거래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현구 기획총괄은 “프로젝트에 돈을 투입하는 은행이 프로젝트 착수 전 사업계획 등 모든 것을 철저하게 검증한다. MLU 개발사가 의뢰인을 속이려 한다면 이 과정에서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MLU는 법과 규정을 철저히 준수한다고 설명했다. 이현구 기획총괄은 “공사를 할 때 푼돈 아끼려다가 정부 규정에 걸려 6개월~1년간 문 닫는 분들도 있다”며 “어떤 업종이든지 설계에서부

터 건설까지 법에 맞게 공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MLU는 속도와 융통성에서는 한국적이다. 이 기획총괄은 “공사를 미국회사에 맡겨본 분들은 우리회사의 진가를 안다”며 “미국계 회사는 보통 우리보다 공사시간이 1.5배 이상 길고, 비용은 2배 가까이 높다. 그들은 야간 작업도 안 하더라”고 말했다. 이렇게 신속하고 저렴하게 공사할 수 있는 것은 노하우 때문이라고 이 기획총괄은 설명했다.

MLU의 비전은 미국 개발시행사를 압도하는 한국계 개발시행사로 자리잡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계속 도전하려고 ‘무한도전’을 뜻하는 ‘언리미티드(Un Limited)’를 회사이름에 넣었다. 이문구 건축총괄은 “형제처럼 지내면서 각자의 전문성을 발휘해 팀이 되는 것이 꿈”이라며 “구중현 전기담당과 오영호 HVAC담당, 협력업체들과도 신뢰의 끈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심재훈 기자

스릴 넘치는 금융범죄 영화 ‘돈’

이달 29일, 워싱턴DC 개봉

한국서 개봉 4일만에 100만 관객 고지를 밟으며 주말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한 영화 ‘돈’의 북미 개봉이 확정됐다.

‘돈’은 부자가 되고 싶어 여의도 증권가에 입성한 주식브로커가 작전 설계자를 만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다. 개봉 첫날부터 헐리웃 영화 <캡틴 마블>을 제치고 일일 박스오피스 1위에 오르며 첫 주 150만 관객을 돌파, 화려한 출발을 알렸다.

영화 ‘돈’은 개봉전부터 연기파 배우들의 출연으로 화제를 모았는데 드라마 <응답하라 1988>로 얼굴을 알리고 영화 <독전>을 통해 다양한 캐릭터를 보여 준 배우 류준열과 강렬

한 존재감의 배우 유지태, 대세 명품 배우 조우진이 호흡을 맞추며 영화 몰입도를 높였다.

‘돈’은 영화 ‘베를린’, ‘부당거래’의 조감독으로 류승완 감독의 기운을 담고있는 신예 박누리 감독의 장편 데뷔작이다.

오직 부자가 되고 싶은 꿈을 품고 여의도 증권가에 입성한 신입 주식브로커 조일현, 뺨도 줄도 없는 그에게 ‘번호표’라 불리는 신화적인 작전 설계자가 나타나면서 거래 참여를 제안받고 큰돈을 벌게 되지만 금융감독원의 사냥개 한지철의 등장으로 긴장감 도는 삼각관계가 형성된다.

‘돈’은 3월 29일 부터 리갈페어팩스 다운센터 극장에서 관람할 수 있다.



주소 : 4110 West Ox Rd, Suit 12110, Fairfax, VA 22033 김윤미 기자

제한속도 준수 서약 ‘Pace Car’ 프로그램 확산

주민자치단체의 교통캠페인이 상당한 성과를 얻고 있다.

버지니아 폴스 처치 시티의 시민자문위원회가 시작한 페이스 카 프로그램이 페어팩스 카운티 등 인근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 위원회는 제한속도 준수, 보행자 우선 통행권 보장, 안전운전 서약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스티커를 배포한다.

이 스티커는 앞 유리창과 뒷범퍼에 붙여 매번 운전자가 상기할 수 있도록 한다. 폴스 처치 시티 정부는 이 단체의 스티커 제작 비용 500달러를 후원하는 등 모범적인 민관 협력사업으로 꼽히고 있다.

시민자문위원회의 안드레아 카우몬트 회장은 “과거 조종했던 분노심도 심처럼 변모하면서 교통상황이 날로 악화되고 있기에, 시민단체가 나서 스스로 자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교통법규 준수 서약과 스티커가 운전자의 난폭 운전과 불법 운전 등에 대한 심리적 방어기제로 작용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한다.

시민자문위원회는 이밖에도 교통 혼잡을 줄이고 보행자 사고 등을 줄이기 위해 일부 구간의 지하차로를 건설하는 방안과 개발업자가 교통량을 줄일 수 있는 프로젝트를 포함할 경우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안도 제안하기도 했다.

김욱재 기자

GRAND OPENING

베트남 쌀국수 전문 레스토랑

Phở

Nụ Cười Saigon

포사이공

영양의 균형이 완벽한 음식
최상의 맛, 최우선 고객
신속하고 친절한 서비스

703-272-8839
9535 Braddock Rd., Fairfax, VA 22032

open EVERYDAY : 10:00am ~ 9:00pm
www.phosaigonva.com

Available for Delivery!

PHO SAIGON COUPON
10% OFF
exp. 06/30